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시즌 2로 신드롬 이어간다! 하반기 공개 확정!

2025. 4. 3.

은퇴한 축구 선수들의 믿기지 않는 투혼과 치열한 승부를 뛰어넘는 재미와 감동으로 세대불문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슈팅스타>가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2>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께 K리그 현역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단 하나의 풀타임 성장 축구 예능**이다. 지난 시즌, 쇼츠와 릴스 300만 누적 조회수를 돌파하며 실시간 화제성을 입증한 <슈팅스타>는 시즌 1보다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된 출연진과 K3리그 현역 도전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다시 한 번 '슈팅스타 신드롬'을

이어간다. <슈팅스타> 시즌 1에서 펼쳐진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의 불가능한 도전은 각본 없는 웃음과 눈물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번 시즌 K3리그로 승격된 'FC슈팅스타'는 K리그1과 K리그2를 잇는 국내 세미프로 최상위 리그 K3 구단과 대결을 펼친다. 상대가 강력해진 만큼 선수들도 드림팀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만큼 화려하게 업그레이드 된다. <슈팅스타> 시즌 2에는 구자철, 이근호 등 이름만으로도 벌써부터 축구팬들을 설레게 할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한다.

구단주 박지성과 다시 한 번 그라운드에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뜨거운 감동과 폭발적인 반응을 예고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자 '런던 세대'를 이끌며 국가대표 주장까지 맡았던 구자철, AFC 챔피언스리그 MVP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태양의 아들' 이근호, 시즌 1에서 최용수 감독의 극찬을 받았던 '염스타' 염기훈, 그리고 레전드 수비수 윤영선 등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은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FC슈팅스타'의 험난한 도전에 함께한다.

지난 시즌 팬들로부터 요청이 쇄도했던 직관 이벤트도 진행된다. <슈팅스타> 시즌 2의 전 리그 경기는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의 깜짝 방문과 직관 관객들만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한정판 굿즈도 만날 수 있다. <슈팅스타> 시즌 2 직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쿠팡플레이에서 추후 공개된다.

또한, 실력 있는 유소년 축구 유망주들에게도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될 유소년 선수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대한민국 레전드 선수들의 노련함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지난 시즌 'FC슈팅스타'에서 활약한 김현우, 김호진 선수는 레전드 리그 도중 U-20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선수들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받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조효진 PD는 **"지난 시즌, 진심 어린 응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K3리그는 진짜 프로들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리그다. 더 치열해질 도전의 과정을 선수와 팬, 시청자들이 같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예능을 만들어 나가겠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슈팅스타 팀과 K3리그의 대결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2>는 2025년 하반기 공개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